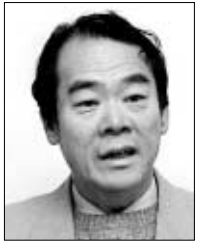




병든 사회, 병든 개인



이근후 열린마음의원장

최근 한 주간신문의 사회면을 펼쳤더니 모두 9쪽지 가운데 4건이 실직이나 빚 아니면 실업과 관계있는 기사다. 실직층적 20대 자살, 트럭구입 빚 시달린 화물연대조합원 자살, 일가족 4명 채무비판 목숨 끊어...

원인을 따지면 모두 경제적인 이유들이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의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해치는 강도 등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과 강도, 살인 등의 소식이 들리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모두 우리들이 저질러온 업보일진대 누구를 원망하라.

하지만 이를 대하거나 다루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여론을 대표하는 신문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자살하는 개인의 문제, 강도짓 하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여 마무리 지으려는 속성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자살은 분명히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 적응이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업보가 쌓인 내용을 보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할지 모르지만 사회구성원이란 점에서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제 명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오죽하면 죽음을 선택했을까 하고 연민만 가지지 말고,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사회가 그로 하여금 죽을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요인에 대해서도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건강한 사회는 병든 개인조차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건강한 소수의 개인만으로 병든 사회를 고쳐나가기 어렵다.

최근 한 주간신문의 사회면을 펼쳤더니 모두 9쪽지 가운데 4건이 실직이나 빚 아니면 실업과 관계있는 기사다. 실직층적 20대 자살, 트럭구입 빚 시달린 화물연대조합원 자살, 일가족 4명 채무비판 목숨 끊어...

원인을 따지면 모두 경제적인 이유들이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의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해치는 강도 등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과 강도, 살인 등의 소식이 들리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모두 우리들이 저질러온 업보일진대 누구를 원망하라.

하지만 이를 대하거나 다루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여론을 대표하는 신문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자살하는 개인의 문제, 강도짓 하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여 마무리 지으려는 속성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자살은 분명히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 적응이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업보가 쌓인 내용을 보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할지 모르지만 사회구성원이란 점에서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제 명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오죽하면 죽음을 선택했을까 하고 연민만 가지지 말고,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사회가 그로 하여금 죽을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요인에 대해서도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건강한 사회는 병든 개인조차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건강한 소수의 개인만으로 병든 사회를 고쳐나가기 어렵다.

한국존슨, 사찰에 모기차단제 무료 제공



한국존슨은 전국 산사에 모기 차단제 '오프'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4일 홈페이지(www.koreaajohnson.co.kr)를 통해 밝혔다. 한국존슨은 불가에서 살생을 금한다는 점에 착안, 죽이지 않고 모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한다. 15일까지 사찰 이통과 주소, 연락처, 산사에서 겪은 모기와의 경험담 등을 적어 이메일(euna@medicompr.co.kr)로 보내면 된다. 080-022-2701

장군속미

서방의 '미륵' 라엘?



지난해 말 세계 최초의 복제 아기 탄생 논란을 몰고 왔던 인간복제 전문회사 '클로나이드'의 설립자인 라엘(56)이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하려다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돼 돌아갔다. 인간복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입국이 거부된 라엘은 이번 내한 강연회에서 자신이 불교에서 예고된 서방의 '미륵'임을 선포할 예정이었다고.

새로운 문화 코드로 '고양이족'이 등장하였다. MBC 드라마 '육박방 고양이'의 유행이다. 결혼이란 제도의 율타리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지붕 밑에 동거하는 남녀가 바로 고양이족이다. 사실 결혼이란 모험이다. 20-30년 간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남자가 오직 '사랑'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혼율의 증가가 이를 잘 말해준다.

북유럽에서는 동거가 결혼만큼이나 흔한 정도로, 서구에서 동거란 새로운 형태의 대안 가족이다. '육박방 고양이'의 두 주인공 경민과 정은은 그냥 눈이 맞아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뒤 동거에 들어간다. 카메라란 광고가 생겨난다. "일단 찍고 본다. 사랑은 그 다음이다." 오늘날 동거는 카메라를 사랑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일단 동거하고 본다. 결혼은 그 다음이다." '사랑→육체'의 공식은 이제 더 이상 동거 젊은이에게 고리타분하다. '육체→사랑'의 수순이 이들에게 정서이다. 사랑과 결혼의 정서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왜 청춘남녀들은 '고양이'를 키우고자 하는가? 이유 없는 반항인가? 그냥 또 하나의 사대주의로 유행에 불과한가? 결혼만큼 한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윤리학 교수

동거, 함정 가득한 행복

없다. 그런데 결혼은 불확실한 미래로, 쉽게 번복할 수 없는 사회 족쇄이다. 그래서 결혼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자 갖가지 묘안이 개발되었다. 그 중 하나가 공합이다. 그러나 공합은 공합일 따름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애를 해도 도무지 사람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연애를 통한 사랑 고백, 그것 믿다가 큰 코 다친 남녀가 한 둘이 아니다. 그래서 팔자소관을 탓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이 '평생 원수'로 삶을 마감하곤 했다.

운명의 노예가 아닌 운명의 주인이고자 하는 현대인은 팔자를 건어치우고 이혼을 선택하였

다. 하지만 이혼 역시 그 희생이 너무 크다. 청춘을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역시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싱글족으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독신은 너무 외롭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결혼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답이 다름 아닌 동거가 아닌가? 사주팔자에 따른 미신적 공합이나 관념적 사랑을 통한 정신적 공합, 그 어느 것 하나 결혼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지 못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직접 경험밖에 없다.

동거는 바로 경험적 사랑을 통한 육체적 공합의 추구이다. 이는 단순한 과학의 논리이다. '관찰과 실험'을 직접 해보고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면 결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실험'으로 돌은 꼴 하게 헤어지면 그만이다.

과연 동거란 결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행복을 보장해 줄까? 답은 '아니오'이다. 최근 영국 사회조사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동거 커플은 생활 행편과 정서가 불안정하여 바람도 더 피운다고 한다. 아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동거 커플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혼 부모의 아이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비행에 빠질 가능성도 더 높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동거 커플 중 여섯 쌍이 결혼하지만, 이 중 35%가 10년 안에 헤어지고 있다.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육체적 공합 역시 미래를 보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혼 생활에는 법칙이 없다. 법칙이 없기 때문에 예측은 아예 불가능하다. 열길 물 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합, 연애, 동거, 그 어느 것도 결혼의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결혼은 다만 두 남녀가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일 따름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평화 좌담회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 지리산 1000일기도 900일 행사가 3-4일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와 노고단 일대에서 열렸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4개 종교인과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이번 행사의 둘째 날에는 진월스

님(한국종교연합선도지구 대표)의 사회로 도법스님과 김영호 교수(경북대), 현경 교수(미국 유니온신학대)가 평화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좌담회에서 오고간 내용을 정리했다. <정리=남동우 기자>



<4일 남원 실상사에서 진월스님의 사회로 도법스님과 김영호, 현경 교수가 평화를 주제로 좌담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려는 마음 필요

도법스님(남원 실상사 주지)

김영호 교수(경북대)

현경 교수(미국 유니온신학대)

추상 아닌 진리위한 삶 절실

지금까지 모성성이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세계석학들도 정치인들도 다 해온 이야기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과연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가. 모성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가. 불교적으로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돈이나 권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개인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큰 것이 좋다, 작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이 것 또한 추상적인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불교가 진리다'고 하는 것도 추상적으로 다뤄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실지견이다. 이것이 근거해서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려는 노력을 한다. 부처님의 연기론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중심이 아니다. 세상은 이것이 중심이다. 이것이 근본이다,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 문제만 보더라도 언어는 모든 것을 고정시키거나 분리시킨다. 말로 개념화시키면 그것은 반드시 고정화된다. 진리는 보편성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진리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다.

서로 조화이룬 세계화 중요

헌팅턴은 21세기가 문명충돌의 시대라고 말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문명, 그리고 성장가능성에 대해 많은 벽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지방분권을 모색하고 탈중앙선언을 하는 대안들을 주목하고 있다. 지리산에서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안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산의 대안은 억지로 끌고 가는 대안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리산의 자연도 중요하지만 시장도 중요하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철벽이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나는 큰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다. 자발적 청빈 안에는 근대를 이루지 못한 약점이 있다. 물론 나도 세계화가 미국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 시장이 문제가 되면 시장에 비시장적인 요인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일본밖에 모른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일본밖에 모르는 사람은 일본도 모른다고 답을 했다. 차이가 나는 것,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 다른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공해가 나쁘니까 공업화하지 말고 경제발전하지 말자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갈등넘어 상생과 소통으로 가자

지금 시대는 문명간의 대화,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갈라져 있던 많은 집단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문명 충돌을 문명 대화로 바꾸는 것, 갈등을 넘어서 나아가 상생과 소통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최근 지구화의 특징은 독립적인 자본주의가 추상적인 금력·권력으로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큰 신은 돈이다. 그 신을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 시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IMF나 WORLD BANK, GATT다. 이제 그것이 미국중심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부시와 주변에 있는 무기와 오일상, 몇몇 사람들의 집단이기는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문명적 대안은 무엇일까. 여성적인 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 여성성은 생물학적인 여성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용하려는 마음, 다름을 인정하려는 마음, 그것을 여성성이라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무조건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중심의 지구화가 꿈꾸는 경제 정치 안테로 가면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땅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장경제는 지구를 죽일 수밖에 없다.

2003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패)를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3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패·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승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점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구과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전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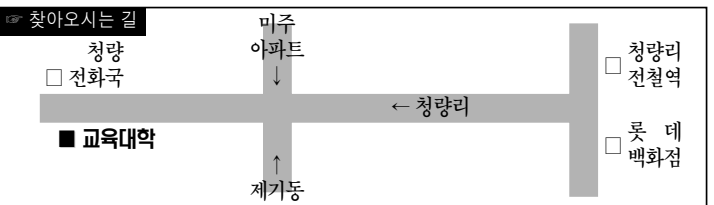
서류전형 (면접)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수계증명서 사본
 - 4) 반명함판 사진 4매
- ▶ 교육시간 : 주 4회(월~ 목)
▶ 접수일자 : 2003년 7월 21일 ~ 8월 19일
▶ 개 강 : 2003년 8월 20일



6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